

# 흔들리는 마운드... 휘청이는 KIA



**KT전, 스티븐스·양현종 원투펀치 내고도 무너져  
유창식·한승혁 이어 양현종·김병현도 2군행  
부진한 타격 속 마운드로 지킨 5할 최대 위기**

KIA 마운드가 위협하다. '리빌딩'의 시즌으로 걱정 속에 출발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인 행보였다. 스프링캠프에서 9경기 103실점을 했던 마운드가 양현종-스티븐스 두 축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으로 움직였고 초반에는 패기의 '92라인'이, 최근에는 최영필을 중심으로 한 '베테랑 라인'이 불펜을 불잡았다. 타격의 부침 속에서도 5할 옆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투펀치가 동시에 너다운을 당하면서 8경기 연속 이어져 오던 kt전 승리 행진이 중단됐다. 어깨 컨디션이 좋지 않던 양현종이 스티븐스와 등판

순서를 바꾸면서, 3일 스티븐스가 먼저 마운드에 올랐다. 1회초부터 KIA 타선이 모처럼 일찍 가동에 들어가며 3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어진 1회 수비에서 스티븐스가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한 뒤 대거 4실점을 했다. 2회2사에서도 볼넷이 빌미가 돼 2점을 내준 스티븐스는 3회 고졸 신인 박정수와 교체됐다. 팀의 kt전 연습도 끝이 났다. 4일 에이스 양현종도 오랜 시간 마운드를 지키지 못했다. 1회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2회를 넘기지 못했다. 2회 선두타자 윤요섭에 이어 박경수에게 연달아 홈런을 내준 양현종은 1.1이닝 3피안타(2피홈런) 3탈삼진 2실점의 기록을 남기고 조기 강판됐

다. 일찍 에이스가 몰라난 뒤 KIA는 공·수에서 집중력 잃은 모습을 보이며 3-12로 크게 졌다. 원투펀치가 잇달아 무너진데다 어깨 근육통에 따른 휴식 차원에서 양현종이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KIA 마운드에 비상이 걸렸다. 마운드에서 경험을 보태던 김병현이 계속된 부진으로 엔트리 말소되는 등 마운드 구성 자원이 매일 변하고 있는 상황. 김기태 감독이 올스타전에 앞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올 시즌 가장 약한 전력으로 남은 싸움을 하게 됐다. 힘을 보태줄 대기 자원도 미약하다. 좌완 유창식은 아직 2군 경기에도 모

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한승혁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 김기태 감독이 시한을 정해 한승혁에게 2군행을 명했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부상과 부진으로 기존 멤버들의 입지가 좁아 든 틈을 타 겁없는 96년생 고졸 신인 박정수가 먼저 기회를 가져갔다. 그리고 한기주가 안정감 있는 피칭을 이어가며 그나마 1군행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현종의 말소는 일단 휴식 차원의 의미기기는 하다. 어깨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한 차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스타전에 앞서 한 차례 등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만 어찌 됐든 양현종이 빠진 마운드는 힘이 떨어진다. 전반기 끝을 앞두고 올 시즌 최대 위기를 맞은 '호랑이 군단'이 어떻게 마운드 고민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 칠레, 메시 울리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



4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의 2015 남미축구 국가대항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우승한 개최국 칠레의 알렉시스 산체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결승서 아르헨티나와 120분 혈투끝 4-1 승부차기 승**

칠레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버틴 아르헨티나를 넘고 사상 처음으로 남미 축구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칠레는 5일(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훌리오 마르티네스 파라다노스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120분간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부차기에서 4-1로 앞서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칠레는 1975년 첫 대회가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코파 아메리카의 전신인 남미 축구 선수권대회(1회 대회 1916년)까지 더해 4차례 준우승만 기록했을 뿐이었던 칠레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99년만에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칠레의 우승은 축구에서 전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칠레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200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스리백(3-back) 전술의 부활을 주도하며 16강까지 올랐다. 축구의 조에 속했던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을 2-0으로 잡았고 16강전에서는 개최국 브라질을 승부차기까

지 끌고갔다. 칠레는 이번 대회에서도 3명의 중앙수비수를 페널티지역 안에 두팀이 세우는 대신 양쪽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하는 특유의 공격적인 스리백을 바탕으로 결승까지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신'의 경지를 자랑한 메시도 이날 칠레의 잘 다져진 스리백 수비에 막혀 날카로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못했다. 두 팀은 팽팽한 점진 속에 연장전에 돌입했고, 연장 30분도 득점 없이 마친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는 첫 키커로 나선 메시만 승부차기에 성공했을 뿐 2, 3번째 이과인과 에베르 바네가(세비야)가 모두 실축했다. 3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한 칠레는 4번째로 나선 산체스가 과감한 파넨카 킥으로 아르헨티나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우승컵은 모두 들어올렸으나 대표팀에서는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감춰야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